

황태인*, 박호진*, 정진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홈연구단*, 성균관대학교**

A Study on Architecture of Digital Home Service Delivery Platform

TaeIn Hwang*, HoJin Park*, JinWook Jung**
 ETRI*, SK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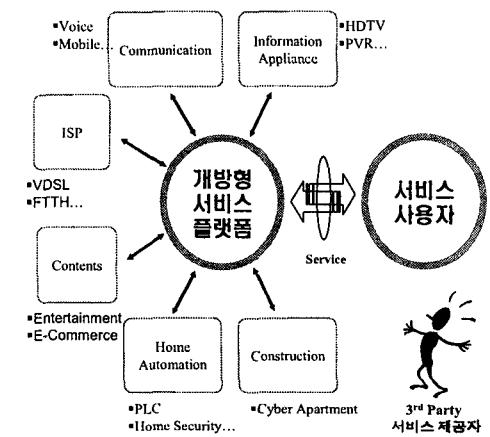
요약

본 논문에서는 현행 서비스 제공 체계의 문제점을 개별 업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체계의 폐쇄성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형 서비스 전달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및 관리체계를 단일하고 개방화시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서비스 공급 체계를 선진화 시키기 위한 디지털 홈서비스 전달 플랫폼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개방형 서비스 전달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통합 관리시스템의 구현과 전개를 통해 3rd 파티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서비스 사용자에게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서론

최근에 맥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단말장치들이 출현하면서 홈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러 대의 맥내 정보가전 장치가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공유기가 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홈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브리징할 수 있는 홈게이트웨이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홈네트워크 시장이 갈수록 커질것으로 예상되며 맥내 홈네트워크의 중심인 홈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맥내 모든 장치들이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IEEE1394를 지원하는 A/V 장치, PLC 기반의 냉장고 및 가스렌지, 블루투스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협압측정장치 등 많은 장치들이 집안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열거한 다양한 맥내 장치들이 홈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될 수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맥내에 있는 장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직접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맥내 인프라가 구축되고 다양한 홈 장치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서비스 제공자들은 구축된 홈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할 것이다. 협압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냉장고나 가스렌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홈오토메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홈뷰어 장치를 이용하여 방범, 방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홈네트워크 인프라만 구축된다고 해서 이와 같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보안 체계와 서비스 사용에 대한 과금 체계가 필수적이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디어만 가지고 소규모 자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과 체계를 갖추기가 어렵다. 즉, 이와 같은 소규모 업체가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플랫폼이 필요하다[1]. [그림 1]처럼 디지털 홈서비스 전달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및 관리체계를 단일화하고 개방화시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서비스 공급 체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으며 체계의 개방화로 3rd 파티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림 1]